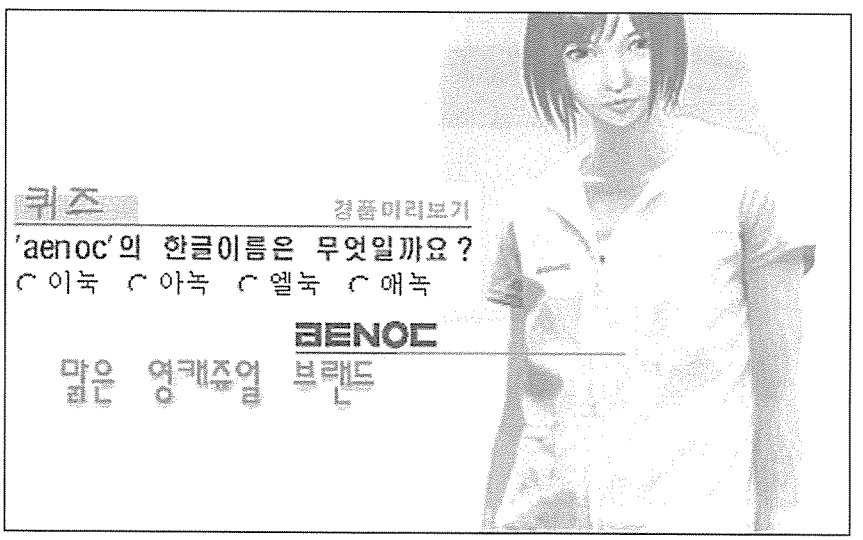
톡톡 튀는 기발한 인터넷광고 잇따라 등장

인터넷 광고시장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의 눈길을 잡아끄는 기발한 인터넷 광고기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올 국내 인터넷 광고시장은 지난해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한 3백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의 배너광고 외에 퀴즈광고, 즉석 복권식 광고, 마우스 포인터 광고 등 새로운 광고기법이 네티즌들의 눈길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네티즌이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배너광고에 숨어있는 경품 당첨여부를 즉석에서 알려주는 즉석 추첨식 광고가 최근 유행하는 광고기법. 이 광고기법은 단순히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홍보 내용을 담은 기존의 배너광고가 클릭률이 저조한 점에 착안, 배너광고 속에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클릭횟수를 획기적으로 높여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추첨방식은 '당기는 슬롯머신' 방식과 '긁는 즉석복권' 방식 등 두 가지로 네티즌들에게 흥미를 더해 준다. 이 서비스 특허를 낸 프리웹미디어는 자사의 인터넷 광고대행 사이트(www.freecity. co.kr)에서 즉석추첨식 광고서비스를 시작했다. 호텔, 외식업체의 무료쿠폰, 컴퓨터 등 인기상품의 경우, 광고 클릭수가 일주일만에 12만회를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보물찾기 광고도 인기를 끌고 있다. 보물지도에 게재된 다양한 광고주들의 사이트에는 광고주들의 홈페이지에 숨겨진 보물의 위치, 모양, 수 등에 관한 힌트들이 들어있다. 이 힌트를 기억했다가 광고주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물을 찾아내면 1등 수십만원에서부터 몇만원까지의 상금을 준다. 광고 속에서 보물을 얻으려면 보물찾기 회원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과 동시에 세가지 보물지도가 제시되는데 이 곳에서 보물찾기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제이엔제이미디어가 이 광고기법을 개발, 지난해 5월 특허출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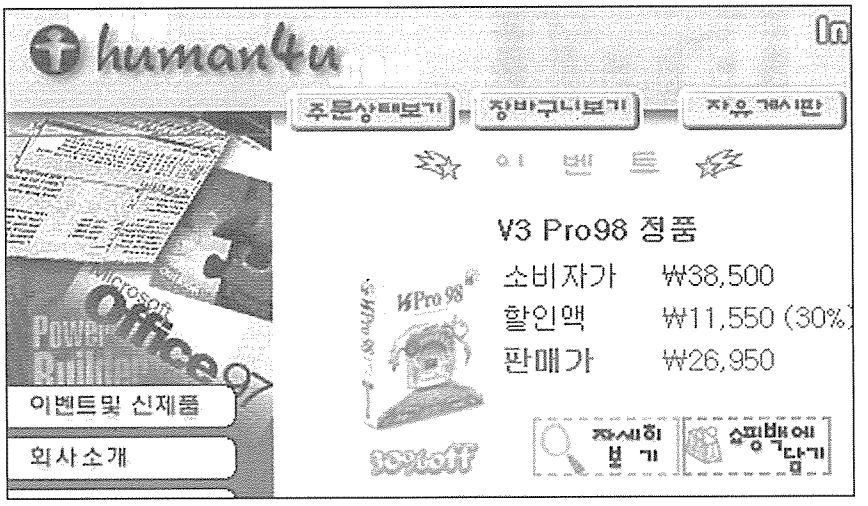


▲ 퀴즈를 맞추면 경품을 나눠주는 광고

마우스포인터 옆에 광고가 나타나 따라다니는 '마우스포인터 광고'는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광고기법. 웹사이트 내에 배너광고를 배열하는 것과 달리 마우스포인터 옆에 다양한 광고들이 번갈아 가며 바뀐다.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광고효과가 높다. 인터넷 광고대행업체인 DMB코리아가 지난해 특허출원 했다. 이외에도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광고주의 상품이나 기업에 관한 퀴즈문제가 나타나고 이 퀴즈문제를 하나씩 풀어 가면 광고주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경품을 추첨으로 받을 수 있는 '퀴즈광고' 등 다양한 광고기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SW 디지털판매 쇼핑몰 첫 등장

소프트웨어(SW)를 파일형태로 온라인 판매하는 SW디지털판매 종합 쇼핑몰이 등장했다. 휴먼컴퓨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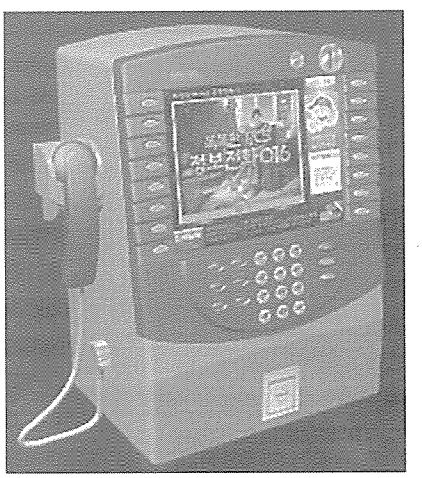


SW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www.human4u.com · 사진)을 개설, 7월부터 판매에 나섰다. 특정 SW를 온라인 배달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많이 있지만 모든 SW를 망라해 파일형태로 판매하는 종합 SW전자상점이 등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휴먼컴은 패키지SW를 우선 판매하고 8월부터는 온라인상에서 파일형태로 판매하는 디지털판매에 본격 나선다.

패키지SW의 경우 온라인으로 주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집으로 배달해주는 형태지만 디지털판매는 컴퓨터상에서 바로 내려받아(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다. 휴먼컴은 SW를 일반 유통점보다 최소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고 디지털판매는 이보다도 더 싸게 공급할 계획이다. 휴먼컴은 일정 사용기간에 따라 가격대를 달리하는 옵션형 디지털판매에도 본격 나설 계획이다. 예를 들면 10만원짜리 SW의 경우 1년 사용 옵션으로 2만원에 판매하는 식의 옵션 제품을 디지털로 판매, 소비자들의 다양한 입맛에 맞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휴먼컴은 컴퓨터 주변기기 및 컴퓨터 서적, MP3 음악파일, 음반 등 다양한 컴퓨터 관련 제품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직접 판매할 계획이다. 휴먼컴은 종합 SW쇼핑몰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근 재외 한국인을 대상으로 SW를 판매해온 컴퓨타워사(www.koreasoft.com)와 국내외 판매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인터넷 공중전화 등장



▲ 음식점, 은행, 백화점 등에 곧 선보일 인터넷 공중전화

음성통화는 물론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공중전화가 이르면 8월부터 등장할 전망이다. 신생 벤처기업인 민텔은 기존 공중전화에 인터넷접속기능을 추가한 멀티폰을 개발, 공항, 호텔, 은행, 백화점, 일반영업장 등에 8월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원하는 업소에서 구입해 설치할 수 있는 공중전화로 단말기가격은 3백만원대. 인터넷 공중전화는 전화선을 인터넷에 바로 접속시켜 놓아 이용자가 인터넷 버튼만 누르면 바로 인터넷에 접속,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전자메일을 보내거나 검색할 수도 있다.

요금은 통상 일반 공중전화 요금과 동일하지만 이를 설치한 업주는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다. 공중전화의 경우, 길거리에 설치된 제품은 한국통신에서 직접 운영하지만 커피숍, 음식점 등 업소에 설치된 공중전화는 업주가 마음대로 설치, 통화료만 한국통신에 납부하면 된다. 대형 업소의 경우 고객서비스차원에서 공중전화를 대부분 무료로 제공할 것으로 보여 무료 인터넷 공중전화도 조만간 등장할 전망이다. 민텔은 "이 제품은 디지털음악인 MP3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 다양한 정보유통채널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광고를 보면 행운권을 줍니다

골드뱅크가 인터넷 광고를 보면 돈을 주는 비즈니스로 대성공을 거두고

▲ 행운권을 추첨해 현금을 주는 네티모아 홈페이지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인터넷 광고를 클릭할 때 행운권을 주는 인터넷 광고 전문사이트가 새로 생겼다. 인터넷광고전문업체인 네티모아는 기업광고를 클릭하면 행운권을 발급하고, 행운권 추첨을 통해 등급에 따라 현금을 주는 광고전문 인터넷사이트(www.netimore.co.kr)를 최근 개설, 서비스에 들어갔다.

행운권은 주간 및 즉석행운권 두가지로 발급되는데, 게재된 광고를 클릭하면 컴퓨터 화면 전체에 광고화면이 나타나고 A조와 B조 두 종류로 5자리 숫자의 행운권이 주어진다. 매주 토요일 당첨자를 발표, 1등 2백만원부터 6등 5백원까지 총 1천5백만원의 당첨금을 현금으로 준다. 주간행운권과 더불어 매일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즉석 행운권은 회원들이 마우스로 긁으면 또 다른 광고가 나타나며 당첨 여부가 확정된다. 당첨된 회원에게는 광고당 2백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경품이 지급된다.

네티모아는 이 사이트에 광고 외에도 건강, 보험, 증권, 뉴스 등 다양한 정보들도 제공하고 점차 여행, 미팅, 결혼, 경매, 공공구매,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네티모아는 앞으로 1년간 총 8억원 이상이 행운권 당첨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회원들에게 광고수익 대부분을 환원, 이 사이트를 세계적인 사이버 공동체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초고속 인터넷접속장비 경쟁 확산

모뎀이나 비싼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화콘센트만 간단히 교체하면 기존 전화선보다 인터넷을 1백배 이상 즐길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뜨고 있다. 오버넷이 가정과 중소기업, 소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참여한데 이어 테크게이트도 자체 개발한 순수 기술로 고속 인터넷 접속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특히 이들 회사가 보유한 초고속 인터넷 접속서비스는 기존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별도 공사를 하지 않고도 전화콘센트만 교체하면 전화국에서 연결된 전용선을 각 가정 등 이용자들에게 연결해 이용자들이 전화와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오버넷은 제일제당이 대주주인 드림라인과 제휴를 맺고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들어간데 이어 에스원과 시큐리티 서비스 협력을 체결했다. 또한 한국통신 자회사인 한국통신진흥과 중소기업과 소호사업자, 소규모 사업장, 오피스텔 등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공동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버넷은 서울 등 대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테크게이트도 서울 일원동 현대4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 시범 서비스를 실시중이며 가락2동 쌍용아파트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일반가정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오버넷의 경우 설치비 10만원에 월 사용료가 3만5천원이며 테크게이트는 월 사용료 3만6천원선만 내면 무제한으로 인터넷과 PC통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이용 무선인터넷 시대

사무실과 집 컴퓨터 안에서 머물던 인터넷이 거리로 뛰쳐 나왔다.

휴대폰과 노트북PC를 연결하던 모바일 컴퓨터시대가 휴대폰 자체로 인터넷을 즐기는 무선 인터넷시대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전자메일을 주고받는 '이동 인터넷시대'가 성큼 열린 것이다. SK텔레콤,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등 휴대폰 5사는 7월부터 무선 단말기 하나만으로 인터넷을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일제히 돌입했다.

▲ 삼성전자가 개발한 인터넷 휴대폰

그동안 날씨, 주식, 뉴스 등 각종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보내주는 데이터통신서비스 경쟁을 했던 휴대폰서비스업계는 이제 '무선인터넷'이란 새로운 황금어장을 놓고 또 한번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게 됐다.

휴대폰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IDC 등 시장조사기관들에 따르면 2003년께 휴대폰 이용의 30%가 무선 인터넷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면 거리를 오가다가 휴대폰을 꺼내들고 원하는 웹사이트를 즉시 검색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일반화하고 있는 전자메일도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이다. 급한 전자메일을 받아보거나 또 이동 중에 전자메일을 보내는 '전천후 전자메일' 사용이 가능하다. 증권사 객장을 찾지 않고도 주식거래를 할 수 있고 비행기·기차표 예매는 물론 공연 티켓 예매도 할 수 있다. 각종 정보검색도 기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일보를 비롯한 언론사의 주요 뉴스를 검색할 수 있고 운세, 기상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이동하면서 언제라도 검색할 수 있다. 현재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는 삼성전자의 인터넷 폰으로 최근 시판에 들어갔다.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핵심은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컨텐츠 업체가 어떻게 휴대폰망에 연결하느냐에 달렸다. 삼성전자는 자체 휴대폰용 인터넷 웹브라우저 '애니웹'을 개발해 인터넷 및 각종 뉴스정보와 주식거래 내용을 검색할 수 있게 했고 공연단체와도 연계,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한솔PCS, 삼성증권, 한미은행, 아시아나항공 등과 제휴를 맺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

이용방법은 전자펜을 이용한 원터치식. 인터넷을 하려면 전체기능을 표시하는 '홈'에 이어 '애니웹'을 누른 후 검색어를 입력해 사이트를 찾아가면 된다. 전자메일을 이용하려면 우선 '메일환경'에서 보내는 서버와 받는 서버를 설정해줘야 한다. 한편 삐삐사업자인 SK텔레콤과 서울이동통신, 해피텔레콤 3사는 삐삐를 통해 인터넷 정보 1백60여가지를 제공하는 '스파이'(SPY) 시범 서비스를 7월부터 시작했다.

'해킹자유지대' 사이트 개설

해커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해킹자유지대'가 국내 최초로 인터넷상에 만들어졌다. 정보보안기술업체인 ㈜시큐어소프트는 이달 중순께 음성적으로 불법 해킹을 일삼는 해커들에게 해킹연습, 해킹에 관한 법률지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양성화를 유도하는 '해커스 랩' 사이트(www.hackerslap.org)를 최근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다양한 단계의 해킹문제들을 제시해 해커들이 마음놓고 해킹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적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사이트를 해킹하는 행위를 크게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킹에 관련 국내 법률, 국제법, 윤리적 문제 등의 내용을 수록, 평균 연령이 17세 정도의 미성년자들인 해커들에게 해킹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이나 불법성 등을 계도해 이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게 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시큐어소프트는 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최고의 해킹실력자를 뽑는 「해커 왕중왕」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큐어소프트는 최근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에서 수년간 해커관련 수사를 맡았던 국내 1호 해커수사관 이정남씨를 이사로 영입한데 이어 해커사이트나 해커 왕중왕 대회 등을 통해 해킹 관련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등 정보보안사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ST